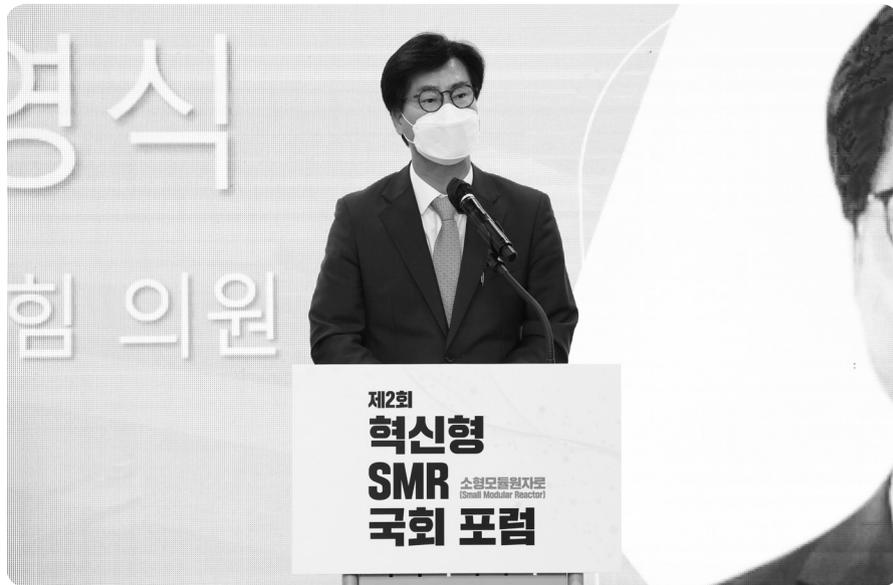


“혁신형 SMR 개발은 우리 공동의 과제”

김영식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조 금 전 이원욱 공동위원장님께서 지식의 축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저도 과학자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 발전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노동을 대신하는 혁명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 두뇌·지식·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혁명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변화를 보더라도 과거 수천 년 동안에는 인구가 10억 명을 넘지 못했지만 현재 인구는 78억 명입니다. 인구가 1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구가 증가했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지식의 축적과 공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대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는 이에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며,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에너지 기술의 축적으로 발생된 것 중 하나가 SM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SMART와 달리 혁신형 SMR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되었습니다. 개발 필요성에 이어 ‘혁신형 SMR의 발전 방향’이 국회 포럼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과정에 ‘제도지원분과’와 ‘예타지원분과’가 있습니다. 저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과 예타지원분과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혁신형 SMR 예타가 제출되었고, 4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구성원들은 예타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형 SMR은 대한민국에 닥칠 에너지 문제 및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 있는 키(KEY)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SMART 개발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산·학·연이 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주도로 함께 그리고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경주시 감포읍에서 착공되었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SMR이 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포럼 개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재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흥택 차관님도 오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하시는 김윤호 단장님과 원자력학회회장님이신 정동욱 교수님, 그리고 황주호 위원님께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원욱 공동위원장님과 저도 함께 혁신형 SMR 국회 포럼과 SMR 개발이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KIF**